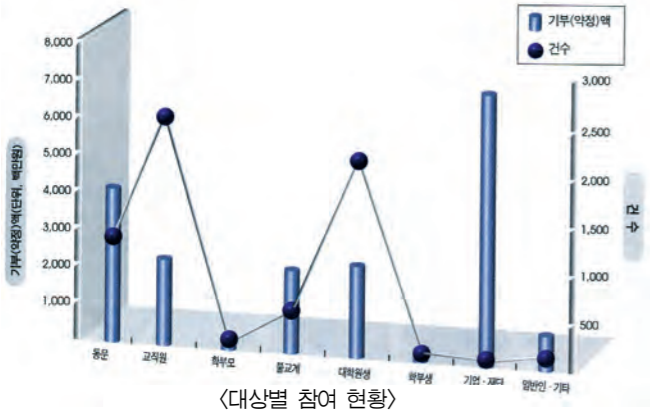


발전기금 4백억원 돌파

지난 10일 생협 장학금등 8억기부 따라

동문참여율 14% 전국 최고



사립 대학의 발전기금 모금이 한창인 가운데 본교의 발전기금 모금액이 4백억원을 돌파했다. 본교 서울캠 생협이 지난 10일 학내 복지금 3억원과 복지장학금 5억원을 기부함으로써 4백7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첫 이번 4백억

원 돌파는 지난 97년 3백억원 모 금이후 IMF사태 등으로 침체된 경제상황속에서 2년 3개월만에 달성된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말이 쉬워 100억이 다시 생 각해보면 이것은 1년에 50억, 1

주일에 1억씩 돈이 모인셈이다. 더구나 그것이 본교보다 많은 모 금을 한 사립 명문 두곳과 여대 한 곳처럼 유관된 특정 재벌기업 에서 한꺼번에 몇십억을 기부하 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심시 일반적으로 8천8백여명에 달하는 동문과 불교계 인사, 교직원, 대 학원생, 중소기업·단체, 학부모 등의 정성이 결집되어 이루어졌 다는 것이 본교 모금의 특색이자 자랑인 것이다. 이러한 쾌거를 가능케 한 것은 몇 안되는 소수의 인원으로 10만 여명에 달하는 예상기부자 명단을 치밀하게 작성, 관리하며 학교 의 소식을 전하고 각종 행사에 초 청하는 등 애를 쓴 개교 1백주년 기념사업본부팀의 노력 덕분이다. 이와관련해 신관호 발전협력팀 장은 "본교의 명성에 대비해본다 면 현재까지의 기금조성액에 아

직 만족할 수는 없지만, 동문기부 금 참여율이 14.3%로 국내 최고 라는 점만은 자랑할 만하다. 짧은 기간에 엄청난 성과를 올리게한 우리 학교의 기금관리프로그램이 나 전산시스템을 배우겠다는 문 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2000년 에 500억이 돌파될 때, 97년처럼 기부자들을 모셔 '감사와 축하의 밤'을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 9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 작된 본교의 발전기금 모금은 △ 자비의 베풀쌍기 운동 △만발봉 안운동 △동국사랑 저금통장 갖

기 운동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 으로 조성된 기금은 △교육시설 확충 △불교종합병원 건립 △연 구 및 실습 기자재 구입 △도서관 장서 구입 등의 목적으로 사 용되고 있다. 오늘날의 대학경영은 '학육강 식의 원리'가 적용되는 생존게임 이다. 그런데 잠재적 기부자들은 재정이 건실한 대학, 투자한 보 략을 바로 느낄 수 있는 대학, 재학생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수 준이 높은 대학, 지역사회에서 지명도가 높고 영향력이 큰 대학 일수록 많은 기부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있다. 대학사회의 서열화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이러한 기부자들의 판단을 뒤집 어 본다면 보다 활발한 모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교는 그러한 대 학으로 인식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보광(선학) 1백주년기념사업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학교밖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은 우리가 해낼 수 있지만 가장 아 쉬운 것은 학부생들의 참여이다. 동국사랑저금통 갖기운동으로 나 누운 저금통 중 학부생 것은 지 난 1년간 겨우 다섯개만이 회수 되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재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가 더 폭발 적인 외부인사들의 호응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오는 2천2년 12월 발전기금 1 천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앞한 발전기금 조성 토 대 구축을 위한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대학부

지면안내

- 대동제 들여다 보기 7면
- 박영석 동문 "또 정복하다" 2면
- 대학언론탐방 계속되고 있다 4면
- 안티미인대회(?) 열리다 6면

보리소

좋은 벗

전 해 주 (불교대학 불교학과)

부처님께서 석가족의 어느 마을에 머무르시 던 때의 일이었다. 시자인 아난다가 질문을 드 렸다. "부처님이시여, 잘 생각해보니 우리들이 좋은 벗을 갖고 좋은 무리속에 있다는 것은 이 미 성스러운 이 도의 절반을 성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좋은 벗은 도의 절반이 아니라 도의 전부라고 하셨 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사람 들은 나를 좋은 벗으로 삼음으로써 늙지 않음 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것으로도 좋은 벗을 가지고 좋은 도반 속에 있다는 것이 도의 전부임을 알 수 있지 않느냐?"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과 함께 교단 구성원 전체를 좋은 벗의 집단으로 보셨다. 우리에게 도를 성취시켜 주는 이러한 벗을 선지사라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선지사의 입장에서 제 자들을 지도하시곤 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천안통을 얻은 아나올이라는 제자가 있다. 아나올은 수행할 때 잠을 못이겨 종종 졸았다. 그래서 하루는 부처님께서 경책을 하셨다. 아 나올은 꾸지람을 들은 후 다시는 잠을 자지 않 으리라 결심을 하였다. 그때부터 잠을 자지 않 은 관계로 시력이 쇠약해 졌고 결국 앞이 안보 이게 되었다. 대신 천안통을 얻었다. 아나올에게 있어서 그후로 제일 어려운 것 은 바늘에 실을 꿰는 일이었다. 가사 옷을 기 워입기 위해 바늘질을 할 때 눈이 안보여 바늘 구멍에 실을 꿰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어느날 아나올이 양지바른 담벽 아래서 지나가는 이를 껴어주고 복을 지을자가 없느냐고, 그 때 내가 그 복을 짓겠노라고 하면서 바늘을 받아 든 분 이 계셨다. 바로 부처님이셨던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께서서는 직접 복을 짓는 일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 짓는 일을 가르쳤 고, 제자들과 더불어 생활하시면서 도사(導師) 의 길을 걸어가고,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시 켜 생노병사의 모든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해주셨다. 부처님께서서는 진리의 체득과 실천이라는 한 길을 다른 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범을 보여 주셨던 것이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스승의 날은 찾아왔다. 그러나 스승과 제자사이에는 예전같지 않은게 사실이다. 사제간의 신뢰와 사랑이 절실한 때가 아닌가한다. 지난 14일 서울캠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석중 대학원총학생회장이 정용길 교수에게 꽃을 올리드리고 있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모이자! 대동의 마당으로”

서울캠 19일부터 대동제 시작 ... 참여속에 함께하는 자리돼야

'손 맞잡고 발 맞추어 가는 길 99 목벽 대동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열린다. ▶관련기사 7면 △민중 생존권 쟁취 △반미반 전으로 통일 조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 창출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 내용 모든 학생들이 함께 공유하고 진 정한 대학문화에 대해 생각하는 모두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이 이번 대동제의 기본 목표이다.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중앙 일정을 살펴보면, 19일에는 목벽 골 락 페스티벌이 오후 2시에서 5까지, 6시부터 목벽대동제 개막 제 와 통일 한마당이 만해광장서 열린다. 20일에는 전국 응원 대제전이 오후 6시에 수영장에서 열리며 21일 오후 6시에는 녹두 거리페막제가 녹두사거리에서 중 구시민들과 함께 진행된다. 또한 20, 21일 양일간 각 단과대 소모 임 및 동아리 등의 상설공연이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불상앞에 서 진행된다. 한편,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

=박찬정·수교4)는 대동제 기간 동안 책·물품 베풀시장, 대동동 약장터, 종이킵 밭기 대회 등을 실시한다. 19·20일 양일간 진행 되는 책·물품 베풀시장은 물건 에 가격을 매겨 학부위로 제출해 물건이 팔리면 오는 21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일 낮 12시 부터 중앙도서관 앞에서 우리란, 우리 차, 우리 음식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대동동약 장터가 열린다. 특히 우리웃 뽀 내기 한마당에는 재학생들이 모 델로 참가해 관심을 끌고 있다. 종이킵 재활용, 후문앞 일방통행, 코카콜라 안마시기 등 학부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아터잡기운 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종이킵 재활용 절찬인 '종이킵 밭기대 회'를 오후 2시 중앙도서관 앞서 진행한다. 각 단과대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사범대=오는 20일 '열전 달 리는 예비교사'가 오후 2시에 열 리며, 이어 오후 3시에는 '통일 작은 한마당'이 열린다. 지난달 10일에는 각 대학 정보

△이과대=19·20일 양일간 실 업영화제를 밤 8시부터 10시까지 명진관 뒤에서 상영한다. ▶2면으로 이어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문제 대학가 '비상'

정부 대대적 단속 방침 ... 본교는 프로그램 통제할 실시

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도 더이상 단속대 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의 컴퓨터 소프트 웨어, 대학교재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지시가 있을 후, 얼마전 부 산에 있는 6개 대학의 담당자와 기관책임자가 행사 임진되는 등 대학은 그야말로 긴장 상태에 돌 입했다. 본교 역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가 불법복제된 것이어서, 불법복 제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10일에는 각 대학 정보

관리협의회인 '전국정보전산기관 협의회'에서 신문지상에 정품소프트웨어사용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협상 주 대사인 SPC(한국소프트웨어재 산 권보호위원회)는 "대책방안 제출 기한인 6월 15일 까지는 단속을 벌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 다. SPC가 주로 문제삼는 곳은 대학내 민간을 대상으로 수익사 업을 하는 부설교육기관이며 실 습용·행정용PC에 설치돼 있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조직적으 로 복제된 것인지, 아니면 개인 차원에서 복제한 일부 제품이 설 치돼 있는 것인지 등에 따라 단 속여부를 결정한다.

대학 불법 소프트웨어의 단속 과 관련해 본교는 오는 2학기부 터 학내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실습용·행정용 PC의 소프트웨 어는 정품을 사용할 방침이다. 현재 정보관리처(처장=이종욱· 회사를 벌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 다. SPC가 주로 문제삼는 곳은 대학내 민간을 대상으로 수익사 업을 하는 부설교육기관이며 실 습용·행정용PC에 설치돼 있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조직적으 로 복제된 것인지, 아니면 개인 차원에서 복제한 일부 제품이 설 치돼 있는 것인지 등에 따라 단 속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이종욱 정보관리

처장은 "소프트웨어 관리 역시 B.S.C처럼 통합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며 "각 학과 별로 나눠진 실습실을 통합하고 고가의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은 공동 사용 하는 등 기기의 가동률을 높여 불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중복구입 을 피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얼마전 아래아한글이 MS사에 팔릴 위기에까지 내몰리고, 6백 만원짜리 조선실록 CD-ROM이 30만원에 팔리는 불법 복제를 때 문에 회사가 문을 닫는 일이 있 었다. 비단 소프트웨어뿐만이 아 니다. 불법복제 단속을 계기로 대학교재 무단복사 판매 등 대학 에 뿌리깊은 '불법 마인드' 근절 을 위해 전 구성원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동대신문 기획광고

대학문화의 꽃이라 불리는 대동제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속에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동대신문사

V I E W F I N D E R D O N G G U K

신록속의 밀어 싱그러운 한해 가득한 도서관 앞 잔디밭. 저 C. C. 들은 무슨 정담을 나누고 있을까? 세월의 풍상을 이 겨낸듯 서있는 돌탑이 믿음직스럽다. 촬영=송광수 동문

다향관 폐쇄 ... 총학, "식당 부족하다"

동국관 학생식당 오늘(17일)부터 본격 영업

생협 긴급 이사회결과 주목돼

지난 3월부터 시작돼 두 달 여간의 공사를 마치고 오늘(17일) 동국관 학생식당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다. 이와함께 다향관 학생식당이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폐쇄되면서 학내 식당공간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이번 식당문제는 학내 공간의 전반적인 검토와 맞물리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학교당국에서는 상록원과 동국관 학생식당을 개관하고 다향관의 학생식당을 폐쇄함에 따라 다향관 교직원식당의 공식적인 영업이 끝나는 7월말 이후부터 공간재배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학교당국은 지하 1층은 현

재와 같은 분구점, 서점, 잡화점 등 복지매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1층은 SRC(Scientific Research Center), ERC(Engineering Research Center) 등의 각종 첨단과학센터, 2층은 교직원식당의 공간과 현재의 보리수 매점 공간을 합해 정보관 리처 등의 행정사무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총학생회(회장=김호중·불교4 이하 총학)는 식당이용의 혼잡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향관 학생식당을 존속시키거나 대체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선진 학원자주화 투쟁위원장은 "상록원식당의 개관

전과 비교해 학생수가 최소 20%이상 증가한데 반해 학생식당의 좌석수는 3%증가 정도에 머물고 있다"며 "꼭 다향관 학생식당이 아니라도 사범대, 학생회관, 정산대 학생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문지역에 식당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학은 오늘(17일)부터 식당문제로 모집단 위 광역화 문제를 중심으로 학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관리처의 한 관계자는 "상록원이 개관한 이후 학생식당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으로서 더 필요한 것은 강의공간과 행정서비스 공간"이라고 밝혀 앞으로 학생들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생활협동조합(이사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생협)은



지난 14일 오후 2시 다향관 학생식당이 폐쇄되었다. 식기재자들을 공사를 마친 동국관 학생식당으로 옮기고 있다.

지난 4일 열렸던 정기총회에서 학생대의원이 제기한 다향관식당 존속요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긴급이사회를 소집, 생협의 입장을 조율하고 학교

측에 결의된 의견을 건의할 예정이어서 이사회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유철주 기자

cows@cakra.dongguk.ac.kr

"후배들에게 정성을 전합니다"

불교학과 졸업생 신간 도서 기증

불교학과 90학번 졸업생들이 본교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학)에 한국 근대 불교사 등 불교 관계 신간 1백8권을 기증했다. 불교학과는 불교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난 95년부터 매년 학번별로 서적을 제공해 왔다.

또한 지난달 30일 93주년 개교기념행사 방문한 이시가지 재노 일본 대정대학 교수는 티베트경 중의 하나인 범문진경패엽사본을 중앙도서관에 기증했다. 한편 법대와 경산대에서는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웹 데이터 베이스 LEXIS-NEXIS 와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의 한신 웹 데이터 베이스를 각각 지난달에 신청구입해 이번달 말부터 전공 분야에 대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 진행

오는 22일 정각원 법당서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오는 22일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을 개최한다.

정각원 법당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치러질 이번 법요식과 관련해 정각원의 안중철 법사는 "부처님의 봉축 법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현명한 삶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전 동국인과 일반 불자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11일 중앙당에서 개최된 수계대법회에는 교직원·학생·일반인 등 약 1천여명이 참석해 수계를 받았다.

축구부 조1위로 16강 진출

야구부는 진출여부 불투명

본교 축구부가 지난 6일부터 열린 99전국체육대회축구연맹전에서 제주대와 서울대를 각각 3대1, 8대0으로 물리치고 조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축구부는 작년 이 대회 준우승에 이어 다시 한번 우승컵에 도전하게 됐다. 본교는 오는 22일부터 진행되는 16강전에 출전한다. 한편, 야구부는 지난 13일 열린 한라대와의 경기에서 6대9로 패해 오늘(17일)과 오는 20일에 각각 열리는 연세대, 한양대와의 경기결과에 따라 16강 진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직원 부분 인사 단행

김항배 교수 동서사상 연구소장 임명

본교는 지난 5월 1일자로 교직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서사상연구원소장=김항배(철학) △교육방송국장 서리=이병천 △총무과장=차선구 △비상계획과장 서리=김현배 △장학과장 서리=이건배 △경주캠 장학과장 서리=안석호 △문과대 교학계장 서리=김대욱 △학생계장 서리=김정대 △경주캠 이부대학 교학계장 서리=김경호 △경주캠 구매계장=박승필 △대학원 교학부=정병경 △관리처 구매과=송민수 △관리처 관과과 과견=김봉주

야간강좌총학생회 발간

총8면으로 19일 첫 발행

야간강좌총학생회(회장=이영수·전산통계4)는 자체 신문인 '미리내'를 발간한다. 야간강좌 학생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오는 19일 첫 제작·배포되는 이 신문은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 발행된다.

박영석, 14좌 완등 '멀지 않았다'

지난 12일 칸첸중가 정복 ... "2천년까지 끝낸다"

'99 동국대 칸첸중가 원정대'의 대장 박영석(동국산악회·체교91졸)등원이 국내시각 12일 오후 6시 43분 세계 3위봉인 히말라야 칸첸중가봉(8천5백86미터)을 정복했다.

박영석등원은 이날 새벽 5시 15분 해발 7천8백미터의 마지막 전진캠프를 떠나 13시간 28분의 사투를 벌인 끝에 강성규 대원(32·체주대졸),

셀과 2명과 함께 정점에 성공했다. 이번 등반으로 본교 산악회와 산악부는 개교 1백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93년부터 추진 중인 '히말라야 8천미터 이상 고봉 14좌 등정사업' 목표 중 11개좌의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또한, 박등원은 개인적으로도 6년간 8천미터급 이상 11개산을 정

복한 '최단기간 최다등정'이란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동국인의 기상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취지를 가진 본교 원정대는 이후 6월 19일에는 파키스탄의 브로드피크봉(8천471미터)을 10일에는 네팔의 마캄루봉(8천4백63미터)을 등정하고, 2000년 K2봉 등정을 끝으로 14좌 완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재북경 동문회 창립

자매대총장 방문 등 국제 교류도 활발

북경에 거주하는 본교 동문들로 구성된 '북경 동문회'가 창립됐다고 박인동(사회83졸)등원이 알려졌다.

지난 3월 20일 동문회 최고 선배인 손근호(국문58졸)등원이 임시의장을 맡아 본교 졸업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임시총회에서 동문회 화석이 통과·발효되었으며, 전원 합의에 따라 과견에 백상현(영문73학번) 등문이 임명되는 등 초대 임원진이 구성되었다. 한편, 이번에 선출된 초대 임원진은 회회장=백상현 △부회장=장만익(행정80졸·한국수출입은행 북경지점장) △교문=손근호 △총무=정재남(법85졸·주중 국내사관 경제부 서기관) △간사=이원호(법93졸·중국인민대학

석사과정)이다. ◇동문회 연락처 : 정재남 총무 TEL : 86-10-6505-2610. 이원호 간사 : 86-10-6251-8950. FAX : 86-10-6505-4937.

국외에서 모교를 알리는 이러한 움직임 외에도 지난 달 15일에는 독일 레겐스부르크대 슈미트(Ruediger Schmitt) 부총장이 다녀가며, 본교의 한의학 과수를 과견해 줄것을 요청했다.

지난 13일에는 일본 불교대학 신입총장인 나카이 신코 총장이 양교 교류확대방안을 논의하러 본교를 방문했다.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는 전 용곡대학 총장이며 현 기부성덕학원대학 총장이 교류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본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 1면에서 계속

△법과대=19일 오후 3시에 영화 '일급살인'을 상영하며, 20일에는 '법대가요제'가 오후 5시부터 총대 임원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열린다. △생자대=대동제 기간동안 곤충, 식물, 분재, 목재 전시회가 해화관 2층 로비에서 열린다. △공과대=19·20일 양일간 식품

공과과는 원흥관 3층 실험실에서, 토목공과과는 원흥관 6층에서 화공과는 원흥관 2층에서 식품·토목전·화공전을 실시한다. 또한 대동제 기간 동안 실직가정을 위한 기금 모으기 행사가 원흥관 1층과 4층에서 진행된다.

△정산대=대동제 기간동안 '학부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기원... 지난주 불교도 주간을 맞아 진행된 행사에서 한 여학생이 연꽃모양의 선전물에 자신의 소원을 적고 있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취업대비 인적성검사 24일 오후 두차례 실시

졸업준비위원회와 학생생활상담센터 주관으로 취업대비 인적성검사를 실시한다.

매경직무적성검사로 실시하는 이번 검사는 오는 24일 오후 3시와 6시 두차례 동국관 L501에서, 25일 오후 3시에 동국관 L401에서 진행된다.

희망자는 오는 21일까지 3·4학년은 과대표를 통해, 개별접수는 학생상담센터나 졸업준비위원회에서 검사비용 3천원과 함께 접수하면 된다. 단, 4학년은 접수비용이 2천5백원이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동국발전기금 기부자명단 (기간:99. 4. 1-4. 30까지)

- <발전기금>
 ▲5백만원 : 한국RF
 ▲2백만원 : (주)티앤이(대표 김정규) 동행라이온스클럽 오인순(행정대학원)
 ▲180만원 : 정진화(의대 교수) ▲1백20만원 : 홍운기(철학과 교수)
 ▲1백만원 : 김봉현(광고학과 교수) 김경환(연극영상학부 교수) 김한식(포항병원 신경외과 교수) 유석동(경주병원 내과교수) 임천준(국문54졸, 동국서림 명예회장) 홍유표(전자공학과 교수)
 ▲50만원 : 이경섭(경주병원 비뇨기과 교수)

- <불교종합병원건립기금>
 ▲김영숙(불교신도)4천만원(합5천만원)
 ▲石上善德(일본 대정대학 교수)384,395,900원(350万円)
 ▲5백만원 : 강현숙(불교대학원13기) 김선길(정완스님, 청통사주지)(합1천만원)
 ▲4백만원 : 리영자(불교대학원장)(합9,100,420원)
 ▲3백만원 : 김경은(현경,행정대학원) 김혜정(불교신도)
 ▲2백만원 : 장시기(영문과 교수)
 ▲1백만원 : 김경훈(불교신도) 김관호(아시아지역학과 교수) 김유남(불교신도) 김진숙(불교신도) 류 철(정보통신공학과 교수) 박순애(불교신도) 원용진(신방과 교수) 이소한(경영학과 교수) 이삼열(가정교육과 교수) 이영호(진월스님, 승가84졸) 이재훈(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이종대(국문과교수) 장재영(불교신도) 최대섭(포항병원 교수) 허갑순(불교신도)
 ▲50만원 : 김종일(경제학과 교수) 박재완(회계학과 교수) 배형(경제학과 교수) 송병호(경제학과 교수) 이인순(불교신도)
 ▲30만원 : 관용희 김정유(경제학과 교수) 박동환(교육대학원)
 ▲20만원 : 김영우 김효영 묘관음사 이윤진 조준예
 ▲17만원 : 쌍계사
 ▲10만원 : 가정희 강기영 김귀순 김수자 김순녀 김홍필 노현순 손원길 연태을 윤구자 이병보형 이형관 정지환 차대수 최인기 최영은 최을식

- ▲8만원 : 송기섭
 ▲5만원 : 강영애 곡두성 김연옥 김효진 이규백 이무준 정호연 최만영 최효영 최효연 황종근
 ▲4만원 : 이윤표 이인표 장경환 허 용
 ▲3만원 : 문성환 박영호 박옥주 정우승 조강자 최영규
 ▲2만원 : 고귀원 곡은희 김경애 김진희 김한성 박영진 이승민 이은호 이희자 최병락 최은경 한혜경 황성문
 ▲1만5천원 : 박진현
 ▲1만원 : 강문구 김경남 김경동 김묘란 김영호 김정일 김현옥 배철수 송춘복 손유현 유대희영 이광수 이명숙 이종실 이호수 이홍환 정민재 조선옥 허 경

- <동국사랑저금통기금>
 ▲김호성(인도철학과 교수)34,510원
 ▲박애란(동문)28,100원
 ▲이법산(정각원)23,960원
 ▲서주연22,710원
 ▲선상규(학생부처장)15,490원
 ▲최광재(임학과)12,600원
 ▲황영란(경주보건소)30,320원

- <경주부관건립기금>
 ▲김설자(간호학과 교수)6백만원
 ▲8백만원 : 김영종(지역개발대학원장) 이태경(컴퓨터학과 교수)
 ▲2백만원 : 김기욱(한의대 교수) 우성기(법학과 교수) 이시영(경제학과 교수) 이준성(법학과 교수) 롯데제과
 ▲1백만원 : 고창택(철학과 교수) 이은희(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재철(컴퓨터학과 교수)
 ▲30만원 : 박수경 ▲5만원 : 우보현(동문)

- <경주병원발전기금>
 ▲5천만원 : 매일유업
 ▲1천만원 : 지멘스제너럴메디컬
 ▲2백만원 : 대구약품 대명약품 동국약품 특원약품

하계 자비 중국어연수 시행

99학년도 하계 자비에 의한 중국어연수 시행에 따른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함.

- 연수기간 : 99. 7. 3 ~ 8. 14(6주)
- 연수기관 : 중국 상해사범대학
- 연수인원 : 제한없음
- 연수내용 : 외국인용 위한 중국어연수(별첨 연수프로그램 참조)
- 연수경비

- 가. 기본경비
- 등록비 : \$15
 - 수업료 : \$450(6주 기준)
 - 기숙사비 : \$5.5 ~ \$8 (1일 1침상 기준)
 - 식비 : \$5 (1일 3식 기준) - 직접 취사도 가능

나. 기타 경비

- 왕복항공료
- 의료비
- 주말여행경비 : 소주(蘇州) 1일에 약 \$50, 항주(杭州) 2일에 약 \$120
- 학점인정('해의 중국어연수' 3학점)
- 신청자격 : 본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단, 현재 졸업예정자는 제외)
- 신청서류
가. 해외 자매대학 어학연수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재학증명서 1부
다. 외국유학생 입학신청서(소정양식) 1부
- 신청기간 : 99. 5. 17(월) ~ 5. 28(금)
- 신청장소 : 연구교류처 학술교류부 ☎ 3876
- 신청서류 중 외국유학생 입학신청서 작성시, 여권번호는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수확(연수) 예정기간은 60일도 작성할 것.

서울캠연구교류처

여름 계절학기 수업 안내

- 개설대상 교과목 : 산사의 생활, 수명등 99학년도 1, 2학기 개설 교과목 및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
- 수업일정
가. 99. 6. 22(화) ~ 7. 13(화) - 16일간.
나. 일반 강좌는 월-금요일 수업을 실시.
다. 산사의 생활은 2백39일간 사찰에서, 수명은 토·일요일 오전에 수업장에서 실시.
- 수강자격 및 신청방법
가. 수강자격 : 99학년도 1학기 재학생으로서,
(1) 조기졸업 희망자.
(2) 재수강자.
(3)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간의 학점교류 희망자.
(4) 복수전공 희망자.
(5) 편입학자 등.
나. 신청학점 : 6학점 이내(매 계절학기의 취득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성적처리
가.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장학선발 및 학사징계와는 무관함.
나. F(과락) 성적에 대하여 성적증명서에 등재함.
다. 재수강시 선취득한 과목의 성적은 자동취소됨에 유의.
-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기간 : 99. 5. 25(화) ~ 5. 27(목) - 3일간.
나. 수강신청서 교부 및 접수
(1) 서울캠퍼스 : 교무처 교무과(이부대학생은 이부대학 교학과로 신청)
(2) 경주캠퍼스 : 경주캠퍼스 교무과.
다. 제출서류
(1) 계절학기 수업 수강신청서(소정양식) 1매.
(2) 사진 1매(4cmx5cm)-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라. 수강료
(1) 개설 교과목 1학점당 ₩65,000(3학점 1과목 수강시 ₩195,000)
(2) 개설 교과목의 특성상 수업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수강자 준비부담.
- 개설대상 교과목 확정일표 : 99. 6. 3(목).
- 수강신청 정정기간 및 추가신청 : 99. 6. 7(월) ~ 6. 8(화) - 2일간
※최초 수강신청자 중 재검, 시간증복의 사유에 한하여 정정가능함.
- 수업시간표 발표 : 99. 6. 11(금) 예정.
- 유의사항
가. '수명' 및 '산사의 생활'의 상해한 수업일정은 별도 공고함.
나. 수강신청서 수업료를 완납하여야 접수가 가능함.

교무처

총학, '5·20 집중행동의 날' 선포

“계열별 모집안 저지·성폭력 근절 학칙제정 성사에 힘 쏟을 터”



지난 13일 총학생회 자키팀의 성폭력 근절 학칙제정을 위한 원효관 집회 모습.

총학생회(회장=이상삼·불교4)는 지난 13일 목요일에 2천년 계열별 모집안 반대 및 성폭력 근절 학칙제정 등의 안건으로 각 학과·학부 학생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상삼 총학생회장은 2천년도 계열별 모집안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학생회장들에게 발제한 후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2천년 계열별 모집안을 살펴보면 △2학년 1학기 말에 전공선택, 2학기부터 전공수업 실시 △각 전공당 인원할당은 전년도 전공 할당인원의 150%~160%선까지, 당해 교원 과 교육시설 수준으로 결정 △전공 선택까지 해당 전공기초과목 학점

이수가 전공 선택의 중요한 기준△교수는 행정 및 교육 편의에 따라 구분된 학과 소속 △99학번은 2천년 계열과 전공의 영향을 받지 않음 등이다.

이에 총학생회장은 △대학 구성 원과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측의 독단적 학사행정 △학문간·지식간 서열화 통한 기초·인문과학의 퇴출 예상 △학부제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 계열은 학부 영역의 확대에 불과 △전공의 부실화 초래 △교수와 학생의 유기적 관계 불가능 예상 △2천 학번 신입생의 소속 불명 등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계열별 모집안 저지투쟁과 1학기 교육개혁투쟁의 대중적 실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5.20 집중행동의 날'을 선포했다.

'5.20 집중행동의 날' 행사의 일정을 살펴보면 △오늘(17일)-각 단대 및 자치기구회장, 각 학과·학

부 학생회장 단식, 인문대·자연대·상경대 단대학생대표자 회의 △18일-각 과 비상총회 개최, 동맹휴업 결의 △19일-전체 학생대표자 회의 △20일-집중행동의 날 개최, 동맹휴업 등이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장은 “지난 1학기의 교육개혁투쟁을 되새겨보고, 2천년도 계열별 모집안 저지를 위한 투쟁에 각 과 학생회장 및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총학생회(회장=전선희·국문4)는 학내 성폭력 사태의 심각성과 성폭력 근절 학칙제정의 중요성을 발제했다.

이에 총학생회장은 “대학내 성적 자율권이 확보할 수 있는 학칙 제정이 이루어질때까지 학교측과의 논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김미영 기자 dg19810273@mail.dongguk.ac.kr

분할납부, 오늘까지 106명 완납

참여미흡... 2학기 시행여부 미지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본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등록금 분할납부를 지난 12일까지 마감한 결과 신청자 1백 9명중 1백 6명이 완납했다고 경리과(과장=신봉근)는 밝혔다.

분할납부 신청은 자제적인 및 구비서류가 까다롭지 않고 신청서와 각서를 작성해 주임교수의 확인서만 있으면 가능하나 그에 따른 납부 기한을(1차=3월 27일, 2차=4월 26일) 초과시 △등록 불인정 △잔액 미납시 미등록 제재처리 △기납부한 등록금 일체 반환 불가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2차 납부 기한인 지난달 26일까지 등록을 마감한 결과 13명이 미완납했으며, 오늘(17일)까지 3명이 미납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경리과 측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만큼 학생들이 준수사항을 잘 지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의 학생들이 납기일을 어겨 행정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등록금 납부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미납자들에게 보낸 상황”이라고 밝혀 2학기 분할납부 시행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회전무대

양심의 등불

“연등꽃이 피었습니다! 알아보니 지난 10일 해질 무렵,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경대교에서 온밤공예 이르는 길에 매달아 놓은 연등이 정체를 벗고 회전(?)에게 하나 둘씩 훼손되고 있다는데. 등심등심 비어있는 연등의 자리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이렇게 해서 사라져 버린 연등만도 10여개에 이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우리들의 양심은 언제쯤 밝혀라.”

햄릿의 부활

“...합참의 뒷!?” 공권력이 캠퍼스를 위협하며 무고한 학생들을 강제연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 13일 총학생회 회장과 법대 학생회장이 연행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한층더 탄압을 요구한다고.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위법이야! 악법이나! 그것이 문제라도!”

기초부터

“...공강일까 아닐까(?) 내용인즉 원효관 강의실 대부분에 붙어있는 ‘수업중·공강’을 알려주는 팻말이 잘 활용되지 않아 공강인줄 알고 들어가보면 수업중, 수업중 팻말에는 공강이라는 경우가 허다하다는데. 더욱이 회전무대자가 지난 13일 오후 2시에서 3시사이 원효관을 불시에 순찰한 결과 36개 팻말중 10개만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8개 가량의 팻말은 파손돼 있는 지경까지 이르고.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공강, 수업중, 공강 수업중 빼먹지 말자. 가가거거고요~ 기초부터 다지자.”

어부지리

“...“MBC가 하나남이다!” 지난 11일 MBC에서 방송사상 최초로 방영중이던 방송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고발프로그램인 ‘PD수첩’이 만민중앙교회의 이단성을 고발하려하자 이에 격분한 신도들이 방송국에 난입해 주조정실을 점거한 것이라고. 이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MBC로 쏠리자 그시간대 광고주들이 폭주한다고 하니, 이에 MBC 광고주에게 “MBC를 믿~습니까?” 하니 광고주 왈, “할렐루야~!”

경주병원, 18일 최신 의료장비 MRI 가동식 개최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가동 및 종합검진센터 관망식이 내일(18일) 오전 10시 경주병원(원장=정필현·정형외과)병원 강당 및 MRI실에서 개최된다.

인체내 방사선 노출위험 없이 신체의 미세한 조직까지 보여주는 최첨단 영상 의료장비인 MRI(자기공명 영상)는 세계적인 진단 의료기기 전문 제조업체인 독일 지멘스사의 자기공명 영상진단기 중 최신품종이다. 주요 특징으로는 △조작간

의 대별도와 해상도가 매우 우수하며, 검사시간의 단축 △안정된 시스템 △혈관의 연속 촬영, 다양한 촬영기법 보유 △ 두뇌의 뇌하수체와 경추, 요추의 1mm 두께까지 촬영 등이 가능하며, 이는 기존의 MRI로는 불가능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장비이다

또한 의료원은 MRI와 관련해 오후 5시 50분부터 강연 및 관망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강연 내용은 △근골격, 신경계의

MRI 이용법=한양대의 한창국(방사선과)교수 △MRI의 일반적 이용법=경북대의 강덕식(방사선과)교수 △MRI의 특수이용법=울산대의 임태환(방사선과)교수 등이 발표하며 △한양대의 강덕식(방사선과)교수는 “MRI의 도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한차원 더 나은 진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본교의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는 일정액의 할인혜택도 주어진다”며 학내 구성원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금 4억 5천만원 받아

본교 창업보육센터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김갑주·국사학 이하 창업보육센터)가 경주시로부터 향후 5년간 받게될 지원금 8억5천만원 중 일부 2억 5천만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게될 5억원의 지원금 중 일부 2억원을 지원 받았다.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및 건립비로 쓰여질 이번 지원금은 창업보육센터 규정·보직 인선을 마치고, 공식기구로 발족될 당일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의 용도는 △근무요원 인건비 △재품개발비 △자료구입비 △시설구입비 △경영기술자문비 △업무기법 교육비 △운영비 등이며, 1차 지원금 중 1억 5천만원을 운영비로 사용한다.

잔여금액 1억원은 중소기업청이 지원한 2억원과 함께 진행될 창업보육센터 건물 신축시 사용된다. 이와 관련해 황윤식 교수는 “창업보육센터에서 경주문화 테크노파크 설립 운영계획을 주도할 예정이었던 것이 경주시에 크게 반영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22일 봉축 법요식

정각원(원장=정성분·불교학)은 오는 22일 ‘불기 2543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을 개최한다.

정각원 법당에서 오전 9시부터 치러지는 이번 법요식은 △삼귀의 △한불가 △반야심경 △현화 △관공 △관공 △연등공양 발원문 △봉축사 △봉축법어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정각원은 내일(18일) 오후 3시 문무관에서 ‘수계대법회’를 개최한다. 교직원과 학생 및 일반 불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수계식은 오복원 큰스님의 설법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동연, 대표자회의에서 회칙개정

권익부·징계조항 삭제... 찬성 36 반대 1

동아리연합회(회장=이건삼·해방꽃집 이하 동연)는 지난 10일 동아리 연합실에서 임시 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가졌다.

동아리 대표자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대표자 회의는 회칙개정과 대응제 안건등을 논의했다.

이중 회칙개정안이 36명의 찬성, 1명의 반대, 7명의 무효로 통과됐으며, 개정된 회칙을 살펴보면 △삭제-임원 동아리 제반 권익을 담당하던 권익부, 특별기구 설치 및 운영, 징계 벌칙제 △추가-문화 및 체

육행사를 담당하는 문화체육부 신설, 본교의 건학이념 위배시 동아리 등록 금지, 타 단체 성격 중복시 동아리 등록 금지, 동아리 등록 요건이 되나 등록원 미제출로 인하여 등록 취소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취소 부결시 가등록으로 인정 등이다. 또한 회칙개정안 중 △등록요건 △등록기간 △등록절차 △심사의기준 △신규등록 동아리는 공간과 예산 분배권이 주어지지 않는 권한 등에 관한 신규등록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재학생 주소변경자 정정처리

99-1학기 재학생중 주소변경자 신고 및 정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시행하니 해당학생은 기간내에 빠짐없이 정정처리하기 바랍니다.

- 대상자 : 주소지 변경자 및 정정희망 재학생
- 기간 : 99. 5. 17(월) ~ 99. 5. 28(금)
- 장소 : 각 대학 교학과
- 유의사항 : 학생 개인별 주소는 학적부상 기본인적사항으로 변경자는 반드시 주어진 기간내에 신고 및 정정처리하여 부정확한 주소지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바람.

경주캠 교무처

99학년도 앨범 촬영 일정표

일자	오전(10시)	오후(2시)	일자	오전(10시)	오후(2시)
5/17	영어영문	생화학	5/27	목	종아중문
5/18	조경	경영(아)	5/30	일	전자계산(아)
5/19	수	고고미술사	5/31	월	경제
5/20	목	미술	6/1	화	전자계산
5/21	금	철학	5/2	수	수학교육
5/24	월	사회복지	6/3	목	국사
5/25	화	불교	6/4	금	불교이동
5/26	수	경영	6/9	수	국악과

경주캠 졸업준비위원회

영남지구 고교생 서예실기대회

1. 행사개요

- 일시 : 99. 5. 23(일) 오전 10시
- 장소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문무관(체육관)
- 참가대상 : 영남지역 고등학교 재학생
- 주최 : 동국대학교 동문회
- 후원 :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동국대학교 동아리연합회

2. 참가신청

- 신청기간 : 99. 5. 23(일)까지
- 신청방법 : 신청양식 작성 후 우편접수 및 당일 접수
- 접수처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동문회(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 문의처 : 학생과 (0561-770-2047) 동문회 (0561-770-2793)
- 참가비 : 1인당 5천원(중식비 포함)

3. 종목 및 지침

- 실시종목 : 한글 한자 사군자
- 명제 : 당일발표
- 취호규격 : 화선지 1/2절(당일배부)
- 지참물 : 붓 먹 베틀 담요(포포) 문진 등 서예도구 일체

4. 학교버스 운행

경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오전 9시 40분, 10시 10분, 10시 40분 세차례 운행함.

경주캠 퍼스

DKBS 임석가요제

1. 가요제 일정

- 예선 - 99년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육방송국
- 본선
- 장소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녹야원
- 개회식 - 99년 5월 27일 수요일 오후 6시
- 폐회식 및 시상식 - 99년 5월 27일 수요일 오후 8시 30분

2. 참가자격

영남 지역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자

3. 참가부문

독창, 중창, 그룹 등으로 창작곡, 기성곡 모두 포함. (단, 창작곡에는 가사집 부여)

4. 구비서류

참가신청서, 참가동의서, 약보 각 1부씩 (참가비:1티당 2만원)

5. 참가접수 및 신청기간

99년 4월 28일 - 99년 5월 20일

DKBS 교육방송국

제2회 동국사랑 홈페이지 경진 대회 안내

- 응모분야 : 개인부문 홈페이지 / 단체부문 홈페이지
- 응모기간 : 99년 5월 12일(수) ~ 5월 26일(수) (2주)
- 응모대상 : 경주캠퍼스 교·직원 및 학생
- 입상자 발표 및 시상

구분	인원/팀		시상내용
	금상	은상	
개인부문	1명	1명	8만원상당의 상품
	1명	1명	4만원상당의 상품
단체부문	5명	1팀	2만원상당의 상품
	1명	1팀	15만원상당의 상품
	은상	1팀	8만원상당의 상품
	장려상	5팀	3만원상당의 상품

- 작품내용 및 평가
 - 주제 : 자유 (단, 비상업적이며 교육적인 내용)
 - 분량 : 제한 없음
 - 평가기준 : 독창성, 내용, 디자인
 - 신청 및 출품방법
 - 신청기간 : 99년 5월 26일(수) 오후 5시
 - 출품방법 : 서버(borus, mail, wwwcs)의 본인/대표자 계정에 작품 저장
 - 신청방법 :
 - 온라인 접수 (정보관리처 홈페이지http://wwwcc.dongguk.ac.kr로 접속 후 신청)
 - 방문 접수 (도서관 2층 정보관리처 교육상담실내 신청서 비치)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관리처 교육상담실로 문의 바람. ☎ 770 - 2485)

경주캠 정보관리처

“대학언론 자유 보장하라”

대언탄 항의 집회 세종대·인제대서

‘대학언론인 공동투쟁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이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이하 전대기련) 주관 하에 지난 12일 오후 2시 세종대에서, 같은날 정오 12시 인제대에서도 각각 치러졌다.

세종대의 경우 각 대학신문기자들 비롯한 전대기련, 연석회의, 영자신문, 교지신문 소속 1백8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대학언론단위 상향 보고 △대학언론사·언론사회단체 지지성명서 낭독 △전대기련 성명서 낭독 △투쟁결의문 낭독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됐다.

결의대회를 마친후 학생들은 정부 세종로 청사로 집결하여 언론단위 규탄을 했으며, 이어 “교육부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고 교육부 장관 면담을 오늘(17일) 가질 것을 요구했다.

이후 지난 지하철 왜곡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 항의 방문을 했으며, 각종 유인물 배포, 피켓 선전을 통한 거리행진을 하면서 경기대로 모여 정리집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김태훈 전대기련 의

장은 “대학신문자주화 투쟁은 더 이상 미룰수 없다”며 “대학언론단위에 대한 투쟁이 단위차원이 아니라 전대기련을 비롯한 모든 대학언론으로 확대 및 연계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제대학교에서도 대경지부, 부울지부를 비롯한 전대기련 산하 7개 지부 1백여명이 모여 인제대신문 편집장 백영순(정치외교3)기자의 무기정학과 기자해직 철회, 박재섭 전 주간교수 퇴진, 봉쇄된 신문사 개방 등을 요구하며 인제대 일대에서 학교측의 언론탄압 행위를 비판하는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날 인제대 늘빛관에서 학생시위를 하는 도중 학교측이 늘빛관 전체의 전기를 차단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 집회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어 분관 항의 방문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측 인사와 학생들간의 심한 언쟁이 오고가는 등 10여분 동안에 실랑이가 있었다.

이번 인제대 언론탄압과 관련해 백영순 편집장은 “학교 제적을 각오하고 투쟁한다”며, “호의 발행이란 명목으로 기



호소... 지난 12일 인제대에서도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대학본부장 권규락 기자가 대학언론의 자유보장을 호소하고 있다. 박양우 dg19711437@mail.dongguk.ac.kr

자를 박탈하고 학생들의 눈과 귀를 피해 신문복간을 실시하려는 학교측은 학생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학교신문을

홍보지로 만들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사취부

육단으로의 신문사 공간이동 요구를 재는 의하고자 했다”는 이유로 신문 발행을 중지시키고 지난해 12월 1일에는 편집국장 과 업무국장을 면직 처리했다.

그후 대학측은 전임기자인 대학원생과 간사를 중심으로 타블로이드판 8면짜리 신문을 배포했다. 이에 시립대 신문사가 총학생회를 발행인으로 ‘민중시대’라는 신문을 제작·배포했고 곧 신문사 전화선이 끊겼다.

세종대 언론탄압은 주간 교수 지나친 원고 검열에서 시작됐다. 특히 94년에는 격주 발행이던 신문이 약 2~3년간의 조판과정을 거치며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그 때부터 올해초까지 대학신문자주화 투쟁을 벌여왔던 세종대는 학교측과 정상 발행을 합의하고 올 3월 2일자로 복간호를 제작·발행했다. 그러나 복간호 발행과 함께 신설된 ‘편집자문 위원회’는 성적조항을 이용해 학점 2.7에 미달하는 기자 3명을 해임시켰다. 대학신문자주화 투쟁 결과로 현재 기자 3명은 복직된 상황이나 신문은 아직 발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편집자문 위원회’의 교수중에 94년 당시 신문 발행을 중지시켰던 주간교수가 포함돼 있어 더욱 경계를 늦출수 없는 실정이다.

각 대학언론 탄압사례

발행중지 ... 기자 해임 ... 신문사 폐쇄

인제대 인제대는 지난해 3월 개강호 부터 현재까지 1년이상 신문이 정상 발행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측은 IMF관련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이하 전대기련) 공동광고와 간부자격기준을 다른 기사 사제를 요구하며 신문발행을 중단시키고 신문사측에 전대기련 탈퇴, 사적개정 등을 강요해 왔다.

이에 학생기자들은 호의 작업 등 학내 선전전을 벌였으나 학교당국은 호의 발행 때 제호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를 불법으로 규정, 편집국장과 기자에게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급기야 신문사를 폐쇄했다.

계명대 계명대 신문사는 4월 20일에 “신문사 규정 제 6조(학점조항)에 의해서 그 직을 면함”이라는 인사발령 통지를 받고 편집국장을 비롯한 5명의 기자가 해임된데 이어 5월 3일에는 폐쇄 조치됐다.

이는 4월 6일자 신문에 대해 1,3,5,6,7,8

면 등 전면에서 걸쳐 인권과 교수 재임용 관련 기사, 김대중 문화정책 1년 평가 기사 등의 사제를 요구, 신문발행이 중지된 이후 부총장과 간담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임통지를 받은 것이다.

학교측은 성적 부진을 면직 사유로 들었지만 학생기자들이 학교와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자주 게재한 것에 대한 제재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호성기톨릭대 개강호부터 노골적인 편집권침해가 끊이지 않았던 대학정론사(호성기톨릭대학)는 또 다시 4월 6일자 신문 발행이 중지됨에 따라 4월 12일부터 투쟁에 들어갔다.

3월 22일자 신문을 대구·경북지역대학 총학생회연합(이하 대경총련) 대의원 기사, 학부제 철폐를 위한 화요집회 기사, 대경총련 대의원대회 가십기사 등 5개 기사에 대한 주간 교수의 사제요구로 인해 3월 25일야 겨우 발행될 수 있었다.

주간 교수는 계속해서 학생기자 원고로

사용 내역공개 등 편집국 운영 전반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강화하며 편집국 의견을 묵살한 채 권위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향대 순천향대에서는 올해초 방중대회 광고 사제를 요구받고, 인쇄된 신문이 배포금지 당하는 사태가 일어났으며, 2월 26일에는 인쇄된 신문을 수거해 가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학생기자들이 학내 선전전을 진행하자 2월 25일 기자 전원을 해임시키고 3월 4일에는 신문사 폐쇄 협박을 하며 전 화선을 끊어버렸다. 현재 순천향대는 학생 기자를 많이 주간교수 임의대로 신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립대 서울 시립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상 발행이 되고 있지 않으며 1년 가까이 투쟁을 벌여오고 있다. 학교측은 “학생기자들이 간사제 도입과 학생회관에서 학생군사교

서총련 ‘힉찬 출발’

지난 15일 본교 서울캠 만해광장에서 각 지역총련 전국 각지서 출범식 개최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 출범식이 지난 15일 새벽2시 본교 서울캠 만해광장에서 치러졌다.

‘2기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이하 서총련) 출범식’이 지난 15일 새벽 2시부터 본교 만해광장에서 치러졌다. 본래 출범식 장소가 연세대로 예정됐으나 경찰의 봉쇄로 인해 본교로 장소를 옮겨 치러진 것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6백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흥대 총학생회장인 이성희 씨의 서총련 의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어 성조기 화형식을 진행했으며 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은 최경남 광운대 총학생

회장이 추대됐다. 한편, 15일을 즈음해서 전국적으로 각 지역총련 출범식이 거행됐다. 15일 10기 대경총련(대구경북지역대학 총학생회연합) 출범식과 대경여대협 출범식이 경북대에서 치러졌으며, 같은날 7기 강릉총련(강원지역대학 총학생회연합) 출범식이 한림대학교에서, 부경총련 출범식이 경성대에서 각각 치러졌다.

송재훈 기자

jaehun79@cakra.dongguk.ac.kr

노동문제 가상대화

“생존권 보장하라” ... “고통분담만이 위기 극복”

노동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과 난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정부는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 오중 사회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 이에 이들 양측의 대립되는 논리를 가상대화해 꾸며 봤다. 여기에는 양측을 대표해서 노씨와 정씨가 등장한다.

편집자 주

노씨 : 노동자들은 잘먹고 잘살자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먹고살기 위해 행동을 취했던 것이다. 실업자 2백만 시대라고 하는데 말이 2백만이지, 총 노동인구 2천만중의 10분의 1이 아닌가. 이러한 상황에서 더 참을 수가 있겠는가.

정씨 : 난국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 구성원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정리해고를 막는다면 기업측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가능하겠는가. 노동계의 이러한 일련의 모습은 집단 이기주의일 뿐이다. 그리고 현재 다같이 개혁하고 바뀌고 있지 않은가. 재벌도 노동자도 정부도 모두... 왜 유독 노동자만 불만을 표출하는 것인가.

노씨 : 정말 개혁이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재벌개혁의 경우 핵심 재벌이라 할 수 있는 5대 재벌에 대해 진정 개혁이 이뤄졌는가. 오히려 그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지 않은가. 또, 정부가 무슨 개혁을 했는가. 정작 개혁을 해야할 주체인 정부는 자기들끼리의 이해관계에 얽매어 개혁을 못하고 있지 않은가.

정씨 : 어쨌든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극단으로 치달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외국기업들이 불안해하고 국가신인도가 떨어지면 다시금 엄청난 환란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가. 계속 이렇게 간다면 노·사 모두가 공멸하고 한국 경제는 회복 불능상태를 맞을 것이다.

노씨 : 기업이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기업이 살았다고 해서 노동자가 살았단가. 기업은 커져도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별반 달라진 게 없었다. 그러다가 이제와서 기업이 어려워니 노동자들에게 희생하라는 것인가. 그러한 것을 떠나더라도 현재 모습은 노동자들에게 생존권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극단적인 방법을 취했다고 비판하는데 우리도 파업까지 치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었다. 하지만 파업을 하지 않으면 어디 말이 먹히는가. 투쟁의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쓰여지는

것이다. 혁명 없이는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정씨 : 우리에게도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대화기구로 노사정위원회가 있었다. 그 안에서 사안들에 대한 대화를 통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재벌로 걸어나가지 않았느냐.

노씨 : 노사정위원회가 진정 공평했다고 생각하는가. 합의된 사항 중 정리해고만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을 뿐 노조 전일자 임금지급, 실직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허용 등의 사안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누차 지적됐듯이 노사정위원회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4월 3일 상설기구로 승격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합의사항에 대한 강제력이 없지는 마찬가지 아닌가.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자 고통분담을 위한 기구일 뿐이지 않느냐.

정씨 : 그렇다고 해도 노동계의 강경한 움직임은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불안요인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시민들을 담보로 한 지하철 파업이나 병원 파업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정당화 될 수 없다. 실제로 지난달 19일부터 실시된 지하철 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지 않느냐.

노씨 : 시민들도 우리의 진정한 목소리가 무엇이었으며, 왜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었는가를 알게된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기성언론들은 현상만을 단편적 혹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도했으며 우리의 목소리와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그리고 지하철 파업이 시작되자 언론이 ‘시민의 발을 묶는 행위’라고 비판했는데 이를 뒤집어 보면 노동자 없이는 시민의 발이 묶인다는 것이 아닌가. 즉, 노동자 없이는 국민이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러한 노동자를 푸대접해서 되겠는가.

정씨 :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이렇게 소모적인 행동만을 취할 것인가.

노씨 : 그렇기가 있겠는가. 우리도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다. 생존권 보장등 우리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자세로 나온다면 충분히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 정부는 ‘파업해소’라는 당장의 문제에 급급해하지 말고 사태의 근원을 해결코자 하는 의지를 갖고 우리와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이 바로 국민이고, 국민이 바로 노동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남대철 기자

eniac97@cakra.dongguk.ac.kr

동약로

“노동자도 환자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지하철 노조가 파업 철학을 결정하고, 14일로 예정된 이화의료원과 총남대, 전남대병원의 노사협상이 차례로 타결되는 가운데 찾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원자력 병원의 분위기는 의외로 고요했다.

환자들이 병원 노조의 파업에 대해 원성이 높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찾은 병원 복도에서 뜻밖에 몇몇 환자들은 파업 선전 대자보에 관심을 기울이며 동조를 표시하고 있었다. 분명 병원 전체의 분위기는 언론 보도와는 사



중중, 즉 병원의 실제 주인을 위한 권리 찾기로 필수 있다.

노동조합 사무실 김성균씨의 “항간에는 정부나 병원측이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여론이 등을 돌리도록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말에서 시민생명에 대하여 무책임하다는

불만이 과연 노조만의 책임인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그는 “최근 일련의 협상 분위기는 긍정적이지만 노조가 안정을 찾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사전에 못 달았다. 이 병원에서 만난 암 치료에 있는 한 환자는 “치료에 차질을 빚는 병원이 실망스럽지만 같은 노동자라는 입장에서 노조의 파업 강행도 이해할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의 생명이 달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병원노조가 파업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에서 투표를 86%에 81% 찬성을 이끌어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노조활동의 보장과 환자권리

송재훈 기자

jaehun79@cakra.dongguk.ac.kr

5. 18정신 계승하자

기념대회, 오늘부터 명동성당·서울역에서

5.18 반미 독재 조국통일 항쟁 정신계승과 미국의 전쟁책동·경제침탈 분쇄, 정리해고 철폐, 민중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족대회가 오늘(17일)부터 18일까지 명동성당과 서울역 일대에서 치러진다.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민권공대위)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의 요구사항은 5.18 광주민중항쟁 19를 기념 및 추모, 반미 및 민족자주권 쟁취, 범민련과 한총련의 이적여 더욱 경계를 늦출수 없는 실정이다.

중지와 공간기구 해체, IMF신탁통치 반대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과 민주권 보장, 민중생존권 위헌 규탄 등이다.

전야제는 오늘(17일) 오후 7시 명동성당에서 미국 규탄과 5.18 정신계승 및 민중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민권 대대제가 열리며, 분행시는 내일(18) 오전 12시에는 종로와 서울역을 경유한 5.18거리 재현국이, 당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는 용산 미군기지까지 행진이 있을 예정이다.

국정홍보처 신설 논란

“또 다른 언론 길들이기일 뿐”

국민의 정부임을 자임하고, 이른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국정철학으로 내세운 현 정부의 공동여당이 지난 3일 ‘정부조직법개정안’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처리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여주어, 이 정권도 지난 정권과 다르지 않음을 여실히 증명해 보여 주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야당과 전문가들이 가장 반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 바로 국정홍보처의 신설 문제였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정권안보의 홍보수단으로, 그리고 정부의 언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공보처를 폐지한 지 1년만에, 국민의 정부 스스로가 없었던 조직을 슬그머니 부활시킨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국정홍보처’를 신설하면서 그 이유로, 한일 어업협상 실패와 국민연금 확대실시의 혼선 등이, 정책자체의 실패가 아니라, 제대로 국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아 실패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 국민들이 한일 어업협상과 국민연금 확대실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논리에 따르면, 정책이 별로 좋지 않다 할지라도 홍보만 그럴듯하게 하면,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발상은 군부독재 시절이나 가능한 발상으로, 언론을 정권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보 양보해서 정부의 이러한 신설배경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현재의 정부조직 내에서도 충분히 홍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국정홍보처’를 신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부, 청와대 공보수석실, 국무총리 공보실, 또 최근에 홍보업무 강화하겠다고 밝힌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실까지 합치면, 현 체제내에서도 국정홍보를 담당하는 곳이 모두 4곳이나 된다. 이러한 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손발을 잘 맞추면 얼마든지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실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정홍보처’를 꼭 신설해야 했는지 의문

스럽다. 지난달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후, 야당과 언론학자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정부와 여당이 신설되는 국정홍보처에 언론매체의 관리기능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정홍보처’가 생기더라도 과거 문공부나 공보처가 비난받았던 것처럼 언론통제나 간섭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홍보수단이 바로 언론매체이고, 정부 역시 언론매체를 통해 국정홍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정홍보처가 언론매체와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과연 언론매체가 국정홍보처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조직은 권력 매카니즘과 그 자체의 속성상, 일을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위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무언가 일을 꾸미게 되어 있고, 그것은 최고통치자의 입맛에 맞는 내용이 될 수 밖에 없다. 과거의 공보처도 국정홍보라는 허울을 빌미로 정권안보의 선도역을 자행했고, 협조



최진봉
언론문화연구소장

라는 미명아래 언론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간섭과 통제를 일삼아 왔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은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언론은 정부의 의도대로 보도하는 정부의 홍보매체가 아니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고 이를 고치기 위해 ‘국정홍보처’라는 기관을 만든다면, 이 또한 새로운 언론통제가 아닐 수 없으며, 그것은 또 다른 언론 길들이기 일 수밖에 없다.

바람직한 국정홍보는 정부의 치적을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알리는 정권 선전의 개념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알려서, 정부와 국민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것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설

여·야 당리당락을 버려라

여당과 야당이 각각 당리당락 차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니 정국이 온통 혼란스럽기만 하다. ‘야’ 다르고 ‘여’ 다르다는 말은 익히 들었지만 요즘에는 ‘여’ 다르고 ‘야’ 다르다는 말로 대체된다해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여당과 야당의 대립만을 놓고 본다면 이는 매우 긍정적이다. 서로간의 견제와 대립이야말로 이들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견제와 대립의 이유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기 위한 정치철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당의 이익만을 위한 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경쟁을 통해 나도 발전하고 너도 발전해서 서로 잘해 보자는 게 아니라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서로를 깎아 내리기에 급급하니 이를 보는 국민들은 감잡할 뿐이다. 이러한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정권이 교체된 후 계속 진행되어온 역사적인(?) 일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IMF이후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모

두가 입을 모아 개혁을 외쳤으며, 실제로 많은 부문에 개혁이 가해졌다. 하지만 개혁의 시작지대는 바로 개혁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정치권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을 만든 선인들의 해안에 다시 한 번 감탄한다.

개혁의 결실들은 바로 여야의 ‘당리당락 지상주의’이다. 변화를 기회로 삼아 물불가리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줄을 당겨대니 팽팽히 맞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여·야의 이러한 행태는 정국을 과행으로 몰고 갔다. 여기에 더해 6.3 선거를 앞두고 보다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야가 뭔가 새로운 불거리를 만들어 줄 것만 같은 기대감(?)이 든다. 별로 보고 싶지는 않지만 안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도 이제 정말 보기 싫다. 여·야는 제발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지키길 바란다. 그것은 당리당락을 떠나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을 공리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대학교육개혁의 문제점

경쟁 2000년 신입생 계열별 모집안 발표이후 학내가 술렁이고 있다. 학교측의 일방적 결정과 기초학문, 인문과학의 퇴조, 전공교육의 부실화 등을 이유로 학생회가 계열별 모집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발전 계획과 이에따른 신입생 모집제도의 문제점은 비단 본교에서만 거론되는 것이 아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이 ‘대학의 확원과 정책’에 반대하고 있으며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학부제 및 계열별 모집의 가장 큰 폐단은 신입생들의 소속감 결여와 상급생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는데 있다.

이는 개인적 문화로 변모해가는 대학문화에 가속도를 붙이는 것과 다를 없다.

대학이 변하고 있으나, 개인주의와 경쟁만이 가득한 학원으로 변모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는 결코 바람직

한 대학의 모습이 아니며 이를 부채질하는 교육부의 개혁방안은 수정되어야 한다. 사회의 양심과 정신으로 남아야 하는 것이 대학의 진정한 모습인 것이다.

본교 계열별 모집에 있어서 지적되는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학생들과의 여론수렴과정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교육부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학교측은 학부제 도입당시와 지난해 학과 통폐합 당시 가장 문제시되었던 것은 학생들의 입장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는데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올바른 교육제도에 대해 학생들도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말하건데 이는 진정한 대학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사회의 미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체육부 부진하다

결국 문제는 무관심과 재정부족

전 동국민 관심 이끌어 후원회 활성화해야

야구, 축구, 농구 등 구기 3종목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본교 체육부가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렇게 지꾸 지나가 속만 상하고 차라리 없는게 낫지 않나”는 다소 감정적인 문제제기를 하기도 한다.

물론, 승패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스포츠 정신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학교가 다른학교한테 지면 기분이 나쁜 것은 당연지사.

이러한 체육부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선수를 수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대학간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선수 스카웃 경쟁,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프로구단들마저 고희대어잡기에 나서고 있으며, 박찬호 이후 한국선수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의 유수 구단들 또한 우수선수 스카웃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김병현(현 메이저리그 에리조나 팀 소속) 선수의 경우 성균관 대학교로부터 입학당시 2억5천만원을 받은 바 있으며, 본교에 입학예정이던 송승준 선수는 메이저리그 구단의 입단제외에 본교진학을 포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체육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웬만한 대학의 스카웃 비용이 선수당 억대를 넘어서는 일이 빈번하다. 하지만 본

교는 재정지원이 넉넉하지 못해 이러한 대학에 비해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고 말한다.

이렇게 체육부에 지원되는 선수스카웃 비용이 다른학교에 비해 크게 부족한 이유는 학교 예산에 있어서의 차이가 아니다. 선수 스카웃 비용의 대부분이 후원회의 지원금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즉, 각 학교마다 후원회가 얼마나 활성화 되어 어느정도의 지원을 하는가에 따라 그 학교의 성적이 좌우되는 것이다.

본교의 경우 야구부 후원회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나마 야구부 후원회도 동문들의 관심부족 등 제반 여건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야구부후원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영(경영학) 교수는 “기존 기금을 관리하는 정도의 활동만을 하고 있을 뿐 새로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활동은 업무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후원회 침체에 대해 언급한 후 “그래서 뜻이 있는 기업인을 회장으로 추대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민중이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후원회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는 전 동국민들이 체육부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갖



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애정이 무조건적인 요구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운동경기가 전 동국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장으로 자리매김해 가야 많은 관심과 애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각 학교 응원단을 중심으로 제안된 용·우·상·사자전과 같은 정기적인 대회 개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용·우·상·사자전은 본교와 건국대, 중앙대, 한양대 등 4개 학교가 정기적으로 경기를 치르는 행사이다. 연교전의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경기를 치르므로써 학교의 이름아래 모두가 하나 되는 애교심 고양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체육부가 다시 예전처럼 ‘잘 나가는 팀’이 되기 위해서는 전 동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그러한 관심 속에서 후원회도 활성화 되고 응원의 열기도 높아진다면 보다 나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남대철 기자
eniac97@cakra.dongguk.ac.kr

알림

만평 필자가 박재우(문창 3) 김봉찬(컴정 1)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삼철공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김주건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부주 김규박	편집장 박상관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편집장 김미경		하이텔·나우누리 ID dgupress 천리안 ID dgupress
		구독문의 : (02)2260-3491·2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61)770-2058
		팩스 (0561)770-2057

본교 젊은 연극제 참가작 '따르뽀프'

연극, 그 중심에 인간이 있다

배우예술로 승화... 오는 21일 막올려



“연습 중에 누가 밥 먹으래, 배우들은 계속 연습하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먹어”

신영섭(연극영화학) 지도교수의 불호령에 공연을 일주일 앞둔 연습실에 긴장감이 감돈다.

제 7회 젊은 연극제를 준비하는 본교 연극영화과 학생들은 식사도 걸러가며 불리에르 원작 '따르뽀프' 연습에 몰입중이다. 한장면, 한마디의 대사를 극에 맞게 만들기 위해 수없이 다듬기를 반복, 장면이 완전히 소화돼야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다. '따르뽀프'라는 사이버 종교인과 '오르곤 가족'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극화한 것.

"따르뽀프"는 루이 14세 때 궁중극작가인 불리에르의 풍자극을 현대

적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계속 흐르더라도 흔히 이단으로 불리는 사이비 종교집단처럼 보편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인간사를 다뤘는데 종교적인 색채와 비극성을 줄여 만화 같은 느낌을 줍니다.”

연출을 맡은 송현진씨는 '따르뽀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연출이 아닌 연기를 전공한 그는 동기, 선·후배의 작은 움직임과 대사 하나 하나 놓치지 않고 어색한 부분은 무대에서 직접 연기를 선보이며 몸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작품은 배우의 연기와 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화적인 성격이 특징입니다.”

또한 기존의 연극작품은 배우보다는 연출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는데 사

실 연극은 배우예술이라며 연기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예술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알지 못하면 예술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한다.

“연극이 무대에 올라가기까지 5개월간의 연습을 통해 서로간의 오해도 많았고 선후배 관계에서 마찰도 있었지만 무대안과 밖에서 서로 인간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라며 그간의 어려웠던 점을 밝혔다. 한해에 한 번씩 젊은 연극제 참가 학교에서 공연과 기획을 맡는데 올해에는 본교가 그 차례이다. 본교 공연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학술문화회관 예술극장에서 치러진다.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달하나 천강에

편안한 감수(感受)



이만 불교문화대 불교학 교수

옛날 어느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암자가 하나 있었고, 스님도 한 분이 기거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랫마을의 한 농부가 본

기가 탕전해와서는 다짜고짜 스님을 마구 몽둥이로 때리더라는 것이다. 얼마를 맞은 스님은 몸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맞는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 그 까닭을 물었더니, 자기에게는 과년한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처녀가 아이를 배어서 탁달한즉 스님이 자기의 몸을 빼앗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울면서 대답하더라는 것이다.

전후의 사정을 안 스님은 농부에게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면서 만약 아이를 낳으면 절로 보내줄 것을 당부했더니, 얼마 후에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데려와서는 버리다시피 놓고는 가버리더라는 것이다.

그 후 몇 년의 세월이 지나서 아이도 천진난만하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한 부인이 찾아와서 스님을 뵈기를 원하니, 스님은 으레 절에 오는 보살로 생각하고 맞이 했는데, 그 여인이 울면서 그 간의 사정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다.

즉 자기는 아랫마을에서 자라 친정이 여기인데 젊었을 때에 이웃집의 총각과 눈이 맞아 아이를 가졌으나 만약에 아이의 아버지가 그 총각이라고 사실대로 말하면 다칠까 봐서 변명하던 차에 스님이 떠올라서 스님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하오니 자기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었다.

스님은 부인의 말을 듣고서, 당신이 언젠가는 올 줄 알았다. 그 때에 내가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호되게 당하면서도 변명을 하지 않은 것은,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가 찾아온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면서 아이의 엄마를 위로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뜻밖에 피해를 본다든지 아니면 누명을 받는 일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그것을 변명하지 말고 그대로 감수하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르기까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저절로 오지 않고, 나쁜 일도 까닭없이 일어나지 않으니, 자기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를 달게 감수하면 좋은 것은 오래가고 나쁜일은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뒤끝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기를 더 굳게 지키고, 남의 사정을 잘 이해하려면 지금보다는 더 낸다는 마음 없는 인내심을 기르는 일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요청되는 것이다.

안티미인대회

“미스코리아 대회를 폭파하라”

획일화된 ‘미인’ 거부... 개성있는 아름다움 추구

“한국에 와서 놀란 게 여자를 보고 ‘예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호주인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호주에서는 이런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는 ‘예쁘다’ 혹은 ‘멋있다’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다. 외모로서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대표적인 예의 하나가 바로 미스코리아 대회. 키는 얼마 이상, 어깨의 각도는 몇도, 나이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그리고 얼굴형은? 34-24-34의 표준미인(?)을 대대적으로 뽑는다.

이런 미인대회에 반기를 들고 여성 문화지 이프(if)가 지난 15일 안티 미스코리아 대회를 개최했다. 연령도 신체사이즈의 제한도 없는 이 대회는 ‘개성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들이 각계각층에서 모였다.

10살인 황우선양부터 머느리와 함께 출전해 여성의 아름다움을 노래

하는 89세의 박복련 할머니,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대표 고은광순씨, 여성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락밴드 변신시멘트귀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순덕 할머니 등 30여명이 이 대회에 참여했다.

“미스코리아 대회를 폭파하라”는 현수막이 붙은 행사장에는 많은 관객들로 들어설 틈이 없었다. 폭파란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린다는 뜻이라고 한다. 사회는 본교 유지나(연극영화학) 교수와 ‘낮은 목소리’의 감독인 변영주씨가 맡았다. 참가자들은 춤과 노래, 악기연주, 연기, 퍼포먼스 등을 통해 개성있는 아름다움을 마음껏 발산했다.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카니발팀. “저는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장래희망입니다. 여자의 행복은 가정에 있는게 아닌가요”, “제 희망은...” 저마다 자기가 제일이라는 듯이 뽐내고 있는 이들을 꼬집고 있다. 거부장제가 우리에게 한 잘못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선택’의 작가 이문열씨



카니발이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

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하춘씨는 “여성과 남성은 서로 승리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패배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은광순씨는 ‘출가외인 아들나고, 제사모실 시집귀신’이었던 한국의 전통여성상에서 벗어나 ‘나대로 살린다’라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가요 가요 나는 가요’라는 개량민요를 통해 나타냈다.

록그룹 마고밴드의 연주로 막을 내린 무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객

과 하나가 되었다.

일주일후면 미스코리아대회가 열린다.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뽑히려 고만 하지 말고, 개성대로 한 번 해보세요”라는 초등학교 4학년 황우선의 주장이 의미심장하다. 과연 미스코리아 대회의 출전자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려는지 자못 기대가 된다. 박영실 기자

youngsp@cakra.dongguk.ac.kr

장영길 교수가 권하는 책



을 적나라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양서적, 번역본

열하일기(熱河日記)

인간의 삶을 떠받쳐 주던 기존 사상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공허해질 때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을 찾아 나서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 영·정조 시대에 일어난 실학사상은 분명 새로운 삶의 밑거름이 될 만했다. 북학과 실학자의 거두 박지원은 중국을 역압하고 돌아와 특히 이용후생(利用厚生)적 차원에서 청(靑)의 문물을 다양한 시각으로 소개하였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실학사상의 이해뿐 아니라 연암문학의 이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양서적, 번역본

징비록(徵戔錄)

임진왜란·정유재란 당시 좌의정, 영의정, 도체찰사 등이 중책을 역임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유성룡(酉靑)이 전쟁 후 관직에서 물러나 7년 전쟁을 회고하면서 쓴 책이다. 임란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과정, 마무리에 이르기까지를 소상히 밝혀 ‘지난 일을 징계하면서 뒷일을 경계한다’는 뜻으로 서에 선생이 저술한 이 책은 국난극복의 지혜를 우리에게 제시해 줄 것이다. 대양서적, 번역본

용재총화(慵齋龍話)

조선 성종대에 활동했던 성현의 저작으로 조선조 수필의 백미이다. 삼국시대로부터 조선 연산조에 이르기까지 예술, 정치, 사회, 문화, 역사, 지리, 풍습 등 다양한 방면에 등장하는 여러 계층 사람들의 삶을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진솔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선인들의 삶의 모습



매체비평

영화

‘케미컬제너레이션’

“전근대가 여전히 상존하는 이 한국 땅에서 영화 속의 인물들을 비웃을 권리가 어쩌면 우리에게 없어 보인다.”



도시라는 감옥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오락 수준의 섹스, 춤추기 뿐이다.

원초적 경험으로서 '자연'을 체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와의 큰 차이는 무엇일까. 적어도 유년기의 숲과 들과 강바람이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세대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 인간의 고향으로서 존재하는, 극복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아닌, 인간과 합일된 '원형으로서의 자연.' 그러나, 도시에서 출생하여 콘크리트 교실과 마천루 밑에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죽어갈 그들에게 도시 밖의 탈출구는 어디인가.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의 공간이자 절망의 공간인 도시(근대의 시작)이다. 더욱이 자신의 노동을 팔아야 생존할 수 있는 청년 프롤레타리아트라면 이 도시는 그들에게 삶의 근거지이자 감옥이다. 도시라는 감옥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오락 수준의 섹스와 LSD, ACID, 텔레비전 키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펑크)을 들으며 춤추기, 열광적으로 축구(운동)하는 일. 그러나, 이것이 이 감옥 밖으로 탈주는 아니다. 국가 생산력 증진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으려는, 스스로 몸을 맡기면서 벌이는 아주 사소한 교란 행위일 뿐. 그러한 일탈의 끝은 어디일까. 돌 중에 하나 일 것이다. 김지하 식의 풍자 아니면

자살이든 전혀 못미치는, 사회적 타살, 아니면 개인의 희생이 뒤따르는 안정적 지배 질서로의 편입이다. 율리우스 식으로 이어지는 이 영화에선 세 명의 청년들의 자리는 아직 저 물의 지점은 아니다. 그 두 지점이 마지막으로 가는 과정이라 짐작되는 것을 뮤직비디오처럼 보았을 뿐이다. 그들의 삶 어디에도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물질 운동 속도에 뒤따르지 못하는 정신 문화의 황폐함을 보았을 뿐이다. 이제는 눈요기감으로도 충분하지 못한 편집과 가끔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이 사회의 화학적(chemical) 반응을 일으킬 세

대를 대표할 수 있을까.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말하는 이들은 바로 지금, 그 끝까지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영화는 우습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 영화 속의 인물들을 비웃을 권리가 어쩌면 우리에게 없어 보인다. 대마초도 제대로 피지 못하면서 펑크 음악을, 부잣집 자식들이 흥내내는, 전근대가 여전히 상존하는 이 한국 땅에서 그들을 바보라고 할 수 있을까. 극장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이다. 그래서 어쩔다는 것인가.

송승환
중앙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이제 축제야? 마치 강의시간 같다. 초기 축제에는 이처럼 학술행사가 많이 치러졌다. 1969년 농촌문제 토론회.



색색으로 단장하기는 했지만 어쩐지 고등학교 축제를 연상시킨다. 1973년 민국 민속의상 발표회.



간이상점이 많아 마치 복잡한 해변에 온 듯 하다. 1만원 이상 구입 시 사은권을 준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이미도 사은권을 받은 학생은 아무도 없을듯. 1978년 동아리 P. T. P의 간이상점.



80년대에 이르러 학술행사는 많이 줄어들고 이처럼 공연위주의 행사가 늘어났다. 금지곡 경연대회는 글씨가 당시 사회상을 말해준다. 1986년 금지곡 경연대회.



어느 소포에서 본듯한 게임, 보기도 해도 재미있다. 각 과별, 각 단대별 행사로 전환,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했다. 그야말로 대동의 장이 열린 것이다. 1993년 대동제에서.

99 대동제

“손 맞잡고 발 맞추어”

단과대 동아리 중심행사 펼쳐 학생참여 유도 ... ‘따로 또 같이’

아카시아향이 가슴에 묻어날 것만 같은 향기로운 동양에 그 향기를 더해줄 대동제의 막이 오른다. 서울캠은 19일부터 사흘간, 경주캠은 25일부터 사흘간 각각 목曜대동제, 일曜대동제란 이름으로 전 동국인이 하나되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동안 도서관에서, 술집에서, 당구장에서 볼 수 있었던 친구들과 함께 동양에서 크게 하나되어 어울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동제. 대동(大同)이란 이름도 시사하듯 전체 동국인을 하나로 묶어줄 대동제는 그야말로 '대문화의 꽃'이다.

대학문화의 꽃 '대동제'
본교 축제는 동국제전이란 이름으로 1961년에 시작되었다. 본교의 특상상 '부처님오신날 기념'이라는 문구가 붙기도 한 축제였으며 행사 내용은 학술 심포지움, 문화연 등을 개최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당시 학생들의 호응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메이 킹 선발대회' '종이 왕관을 쓴 학사들' '행렬' (1964년) 등 이색적 행사도 치러졌다.

학술제 중심에서 '술판'으로
이후 축제기간 중 주점이 난립하는 등 점차 소비향락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주최측의 준비 부족,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학생들을 찾아 볼 수 없는 축제가 진행되기도 했다. 또한 '우리의 것'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으며 주최측의 '목적'이 확연히 드러나는 학술제, 강연회 중심의 행사에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리 만무했다. 진정한 동국인의, 동국인에 의한, 동국인을 위한 축제를 고민하던 이 시기, 드디어 지난 88년에 축제는 대동제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기존 총학생회 중심의 행사 내용에서 각 단과대, 동아리 별로 행사를 개최해 좀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했으며, 주점을 축소해 대동제관이 '술판'이 되는 것을 방지했다.

정체성 살릴 프로그램 아쉬워
대학의 축제는 대학생들의 특권이다. 우리 대학생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대동제에 녹아나야 한다. 대학생만의 고유 정체성이 무

엇인지 규정할 수 없는 90년대 현재, 학생들의 입맛에도 맞으며, 대동제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그래서 어렵다. 지난해 목曜대동제는 성공적이었다. 학생들의 개성을 최대한 살린 불상 앞 상설공연은 여러 동아리, 과에서 참가하는 등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대문화와 자리찾기'라는 이름으로 꽃다지, 안치환 등이 출연한 무대는 만해광장에 모인 수천명의 학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사실 올해 '손 맞잡고 발 맞추어 가는 길, 99 목曜대동제'라는 기조로 서울캠 총학생회에서 준비한 목曜대동제 프로그램은 특별한 것이 없다. 지난해 불꽃을 이룬 외부 기업체 후원행사는 올해 한개도 없으며, 유명연예인(?)은 오직 노래패 천리마 뿐이다. 하지만 동아리 곳곳에 붙어있는 각 과별 행사나 동아리별 행사들을 알리는 포스터는 뜨겁게 달아오를 대동제의 열기를 미리 보여주는 듯하다. '따로 또 같이'라는 말이야말로 우리 대동제의 정서를, 지향 점을 잘 드러내는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미리보는 대동제

ROCK-FESTIVAL
정통 하드 락과 얼터, 펑크, 블루스, 트래쉬, 하드코어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로 선보이는 이번 행사는 본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마다 참가팀이 늘어 이번 행사에는 18개 그룹이 참가신청을 했지만 시간 여건 때문에 10개 그룹만 공연을 한다. 오는 19일 본교 만해 광장에서 오후 2시 20분부터 공연이 시작된다.

우리옷 패션쇼
학생복지위원회의 우리옷 패션쇼를 도서관 앞에서 개최해 학생들에게 우리옷의 맵시를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옷을 저렴한 가격으로 전시 판매한다. 우리옷의 소중함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대동제 기간중 열릴 패션쇼를 위해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모델을 모집하고 있는데 끼 있는 젊은이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대동제 기간중 계속 판매할 예정이며 조기에 품절 될 수 있다.

옛장수, 빙빙기 장수 등장
대동제 기간중 동양에서는 옛가락 치는 소리와 빙빙기 터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학생복지 위원회는 동양장터의 한가지 로빙빙기, 옛장수 아저씨를 특별 초빙해 옛장

터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 시골장터의 이미지를 살릴 예정이다. 시골장터의 한구퐁이에 쪼그리고 앉아 귀를 막고 빙빙기 기계를 바라보는 재미와 옛장수 아저씨의 신나는 가위장단을 들을 수 있다.

종이컵 밝기, 세발자전거 타기대회
학생복지 위원회는 종이컵 밝기 대회를 실시한다. 단순히 팍차기의 변형으로 이용하던 종이컵이 이번에는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상품도 받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리다. 종이컵을 밝아 부피를 줄인 뒤 재활용도 가능해 환경 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도 일깨우는 계기가 된다. 한편, 세발자전거 대회가 열릴 예정인데 더 이상 키 큰 사람이 부럽지 않다. 키가 작을수록, 다리가 짧을수록 유리한 경기, 그동안 다리가 짧다고 불평하던 동양인들이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경주 시민 노래자랑
지역주민과 함께한다는 취지로 '경주 시민 노래자랑'을 개최한다. 개개인이 각자 참가할 수도 있지만 하숙집·자취방 아저씨, 아저씨나 주위의 어른들과 함께 참여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행사가 더욱 빛날 것으로 예상. 오는 25일 오후 4시에 녹야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새내기는 바란다

고교시절 왓모를 구속감을 느끼며 생활한 박모양에게 '대학'은 신선한 그자체였다. 푸른 잔디가 펼쳐진 캠퍼스의 낭만. 특히 매년 5월이면 열리는 대학의 축제는 또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 동경해왔다. 그러던 박모양이, 이제 새내기가 되어 대동제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동제 준비로 술렁거리는 학내 분위기는 박모양을 더욱 들뜨게 한다. 박모양이 꿈꿔왔던 축제 - 그것은 특별한 한계 아니었다. 젊음, 이것만으로도 축제는 이뤄진다고 생각했다. 갖가지 공연, 체육대회, 물품선전지,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 무엇보다 박모양을 살리게 하는 건 '우리들의 축제'라는 것이다. 자유·열정·낭만·패기 - 이 모든게 어우러질 99대동제를 기대하며 박모양은 캠퍼스의 푸르른 공기를 느껴본다.

△인기 연예인들의 공연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대동제 기간에 휴강합니다!
△'기슴을 열리라'처럼 터놓고 얘기하는 마당을 마련해주세요.
△동양 퀸·김 선발대회를 개최합니다.
△즉석 미팅 타임을 가져서 생생파티 해봐요.
△교수님들의 노래자랑 시간을 가집니다.

잡인수식

학교 안에서

아시아의 젊은이들

서울캠 영화공동체 '디딤돌'의 봄 정기영화제. 2천년을 맞아 아시아에 사는 젊은이들을 조명해본다. 아시아에 사는 그들은 어떤 색깔일까? 그들의 색깔을 훑쳐보는 당신은 또 어떤 색깔일까? 학림관 소강당에서.

	오후 3시	오후 6시
17	햇빛 쏟아지는 날들	비보들의 행진
18	아비정전	키즈리턴
19	세친구	메이드 인 홍콩

제2회 식품공학 전시회

서울캠 식품공학과 학생들의 두 번째 전시회. 전통 민속주에서 유전자 재조합 식품, Sea food 가공, 생명 복제기술 등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됐다.

21일에는 'Pasta 가공 및 식품공학 전공자의 진로'에 대한 고원방 동문의 특별강연도 있을 예정.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원흥관 3층 식품공학 실험실에서.

제 18회 응원 대제전

전국대학 응원단이 한자리에 모여 펼치는 응원 축제. 본교 백상응원단과 학생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체 수익금 모두를 중구관내 불우이웃을 위해 쓸 예정이다. 인기 가수 코요태와 박지윤, 본교 학생인 신화가 출연할 예정. 오는 20일 오후6시에, 서울캠 수영장에서.

학교 밖에서

동그라미 창립 30주년 기념사진전

사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서울캠 '동그라미'의 사진전. 1970년에 창설된 이래 1백여회에 이르는 사진전을 개최한 동그라미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전시회를 갖는다. 현재 재학생인 '동그라미'와 이미 졸업한 '동그라미 OB 동우회'가 함께 마련했으며 '창립 30주년 기념작품집'도 발간한다. 교외전시 이후에는 6월초 교내에서도 사진전을 가질 예정.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동승동 디자인진흥원 3층에서.

메아리

힘의 논리

▲유치원, 초등학교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는 공동체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자신 밖의 세계에 대해 인식해 갈 즈음 시작되는 공동체 생활속에서 우리는 서로 보다 많은 이익을 얻고자 부딪치고 다투는 폭력으로 이어진다. 이때부터 힘의 서열은 나뉘며, 힘으로 여러사람을 제압한 아이는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일이 이뤄지는 것을 보며 권력의 미묘한 맛을 느끼게 된다. ▲50년만의 정권교체로 인해 우리네 국민들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인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야당시절 여당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민중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김대중 정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김대중 정권을 내세워 야당 갈등이, 사회의 불순분자(?) 제거하기, 노동운동 탄압하기, 대학 갈등이 등을 일삼고 있다. 힘을 가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면 힘없는 국민들은 마냥 지켜보며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제대와 세종대를 비롯한 20여개 대

학신문에 대한 노골적인 언론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인제대의 경우 편집권을 박탈, 기자 해임 및 징계로 인해 1년여간 신문이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못했으며, 현재 기자들은 해임, 무기징역에 처해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12일 정대기권 차원의 합의 집회가 열렸으나 오히려 학교측은 학생회관 전체의 전기차단, 공권력 투입위협 등 민주주의를 표방한다는 대항으로서는 상상할수 없는 행동으로 학생들의 집회를

저지했다. 결과적으로 학교측과 학생들은 무엇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대립하지만 신문발행 여부와 최종 결정하는 것은 학교측에게 그들의 결정권이 있는 것이다. 학교측이 있다면 신문이 발행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언론탄압을 일삼는 일부대학의 행태는 힘을 가진 아이가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이들의 더 큰 잘못은 그들의 힘과 권력이 국민

과 학생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 이들은 더 이상 국민과 학생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과 학생들이 너무 고분고분해서 일까... 일이 이쯤 되다보니 송강호의 무대포정신을 국민정신으로 승화시킬 것이 어떻게 생각된다. 황성규 편집부장
dg1971439@mail.dongguk.ac.kr

소나기

75분 수업제에 관해



△교수와 학생 모두 적응하려면 힘들 것 같다.
 △75분 강의제(?) 75분 교문제
 △75분강의제는 75분의 겨울잠
 △75분간 교수들의 목무대
 △춤이진 풍나물 강의실에서 75분
 참는 것은 보통 인내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할 텐데...
 △진정 무슨 생각이 이런 의견이 나왔는지. 머리 좀 써라!
 △단순한 설문만이 아닌 토론과 그 내용의 기재 등 조직적인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
 △애매하게 75분이 됩니까? 80분 합시다!
 △이화여대 다니는 내 친구는 더 힘들다고 하던데...
 △나는 니가 지난 60분 수업에도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75분하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그저 수업 열심히 듣고 열심히 가르쳐주시면 그만 아닌가.
 △쉬는 시간이 없애지는 건가요?
 △왜 75분이지?
 △랜해 남의 학교 따라하는 건 아니겠쇼?
 △적극 찬성!
 △어차피 75분 수업을 하나 60분 수업을 하나. 학교 4년만에 졸업하는 건 힘들텐데 뭐. 난 관심없다.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초등학교 수업 45분, 대학교 수업 60분. 우리가 좀더 성숙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수업시간에 달려 있는 것일까?
 △우리 안 성숙한 거 같아.
 △교수님들 더욱 열심히 가르쳐주세요.
 △시간이 강의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오.

학교, 벤처기업 육성·지원 확대해야

전 동국대 경영학과 3학년을 휴학중인 여러분의 선배이자 후배입니다.
 전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벤처기업을 경영했었는데 올해부터 회사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해 학업과 병행할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휴학을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학교 웹사이트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좀 아쉬운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요즘 전반적으로 모든 대학들이 벤처 창업에 돕는다고 난리를 아납니까? 거기에 비해 우리 모교가 다른 대학에 너무 뒤처진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올해 제가 학교에 재학중인 학우들에게 듣기로 벤처창업 동아리가 생겼다는데 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물론 그런 의미에서 학교의 이런 여론 매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디자인을 바탕으로한 멀티미디어 저작물이나 웹사이트 제작해주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가 명예를 드높이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학문연구에 힘을 쏟는것도 좋지만 앞으로 가능성 있는 후배들에게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학교 신문사에 서라도 이러한 전 국가적인 이슈를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여론이나 기사로 많이 다루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의 웹사이트 주소는 www.3dbox.com이며 현재 플래쉬 라는 기술로 만든 사이트 랭킹에서 2~4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망회사입니다.
 하여간 학교와 학교신문사에서도 학교의 명예를 낮고자하는 벤처학우들에게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박성진(psj@3dbox.com)

“도서관은 독서실이 아니다”

서울캠, 도서관 이용의식 개선해야

저는 대학원 미술사학과에 재학중인 김호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건의드릴 사항은 2, 3층 도서실(과제도서실과 정기간행물실등)의 좌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학부 1, 2학년때인 93, 94년경에는 2, 3층에 자신의 가방을 들고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자리를 잡아놓고 다른 공부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닥에 꾸고 앉아 책을 보거나, 창가에 기대서 필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도난방지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자신의 가방

을 들고갈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했고, 이후 도서실 2, 3층이 1, 4층의 열람실(사실은 독서실이라고 부르는데 낫겠네요)과 다를바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2, 3층의 좌석에 가보면 90-95%이상이 자기공부를 하는 학생들입니다. 분명 2, 3층의 좌석은 책을 열람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년퇴임하셨지만 학부시절 주임교수님이셨던 이길용교수님께서 ‘도서관은 독서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요즘들어 부쩍 생각납니다.
 김호산(holding@soback.kornet21.net)



지난 13일 점심식 식전행사에서는 본교 국악과 학생들의 신명나는 국악공연이 한바탕 펼쳐졌다. 여문부

알림

이번호부터 만화필자가 최학(미술3)군에서 박재우(문창3)군과 김봉환(컴정1)군으로 바뀝니다. 앞으로 이들은 삼철공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악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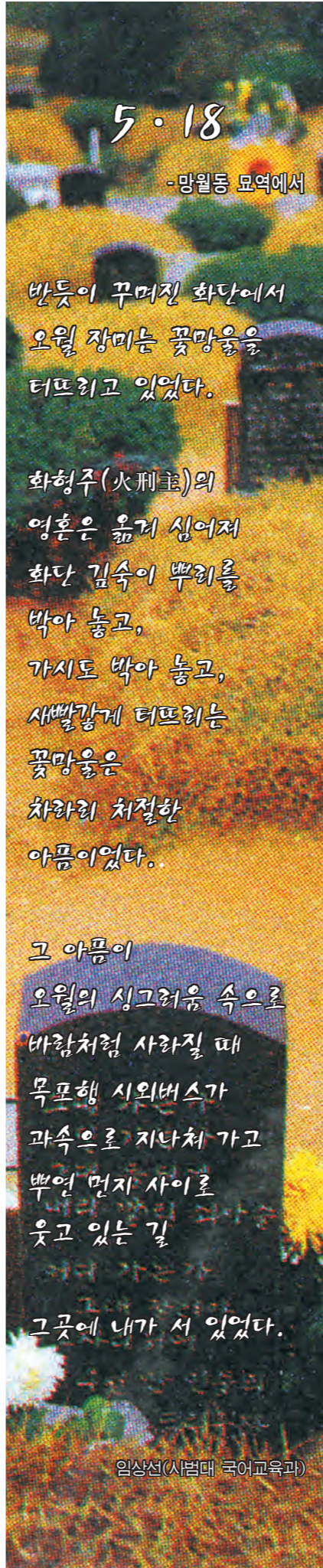
△우리의 귀여운 孟召英(맹소영)의 생일을 축하한다. 중문. 4. 좋아좋아 Girl → 예쁘이. -중문 성연옥
 △헛! 이거 축하해야 되는 건지 안됐다고 해야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졸업앨범 사진 찍은 거 이쁘게 나오면 한 장 주세용!! -이쁜 후배

열심히 합니다

△대동제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모두 열심히 해서 모든 동국인들을 하나되게 하는 장을 마련합시다. -일반 학생
 △3번째 맞는 락페스티벌, 기대가 크다! 부디 모든 멤버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공연되길.
 △젊은 연극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따르프프 화이팅!!

그리고...

△나도 이제 졸업사진 찍었다. 우리 귀여운 동아리 후배 두고 나는 이제 갈 준비를 한다. -랄 '96 주영
 △지금(14일 밤) 학생회관이 무척 시끄럽습니다. 아마도 서총련 출범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다항관이 폐쇄됐다. 14일 오후 2시.
 △솔직히 학생회에서 다항관이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별로 설득력이 없다. 학생식당의 의외로 붐비지 않기 때문이다. 차라리 학생회관, 학림관, 정보문화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후문 가까이에서 식당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다. 어서 식당 하나 더 짓든지 다항관을 다시 살리든지...
 △박영성 선배님! 부디 히말라야 14개 고봉 등정을 올해안에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모니터링

1272호 동대신문을 읽고...

“동강은 ...” 냉철한 문제접근 미비 ‘신지식인 운동’ 형평성 어긋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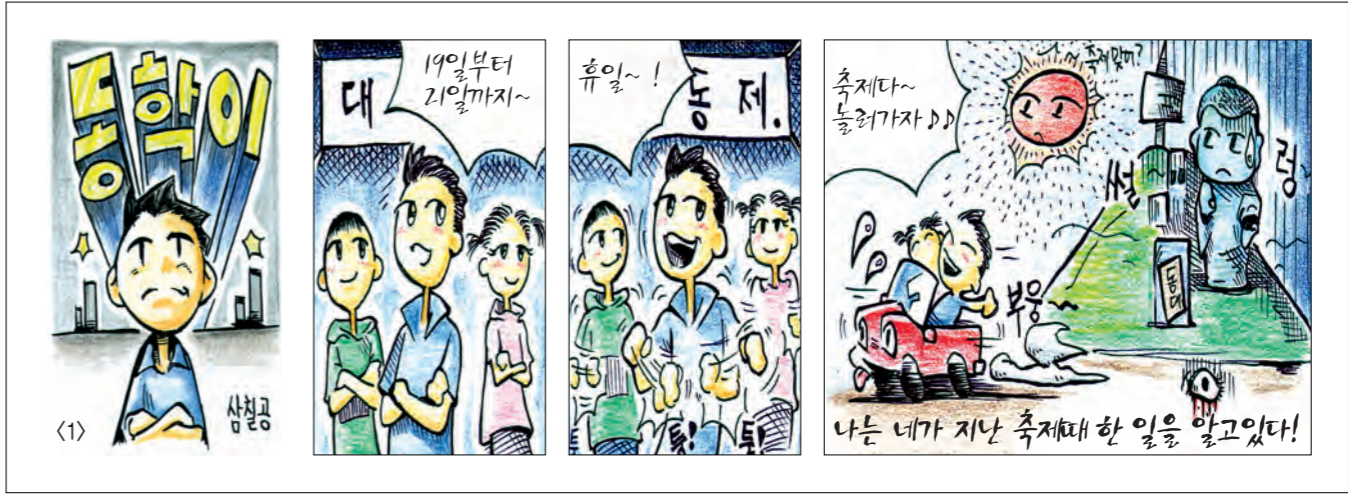
언론학에서 언론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공중의 관심사를 다루는 경우에 찬성과 반대편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원칙이 형평성의 원칙(Fairness Doctrine)이다.
 언론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나 의견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한쪽 의견만을 강조해서 보도하면, 독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5월 10일자 동대신문에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기사가 있다. 12면에 게재된 “신 지식인 바람이 분다”라는 제목의 기사 경우,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 지식인”운동에 대해 논란 하나, 논란 둘이라는 소재목까지 달아가며 논란 거리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좋았는데 문제는 기사내용이 “신 지식인”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주장만을 제시해 주고 있어 아쉬웠다.
 논란거리를 제공하려면 “신 지식인”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의 주장도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텐데, 논란 둘 다 “신지식인”운동

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주장만을 제시하고 있어 형평성을 잃은 편파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해본다. 논란 거리에 대한 최후의 판단은 독자가 하는 것이고, 언론은 독자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보도태도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6면에 게재된 “동강 현 지탐방”기사는 르보현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사내용이 기사로서의 전문적인 접근방법보다는 기행문적인 서정적 접근에 치우쳐 아쉬움을 남겼다. “동강은 흘러야 한다”는 기사제목과는 동떨어지게 탐방일정 위주의 기행문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는 이 기사는 왜 동강이 흘러야 하는지에 대한 냉철한 문제접근과 분석이 미비해 기사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동강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기자적인 접근과 분석, 그리고 대책제시 등이 포함되었다면 훨씬 설득력 있고, 훌륭한 기사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
 언론문화연구소

“단편적 사실전달보다는 구성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어느 책에서는 신문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했다. 즉, 신문이란 것은 우리들의 일상 생활 구석구석에서 개개인의 삶과 얽혀 생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필자는 요즈음의 동대신문을 이러한 고민의식을 바탕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지난 1272호 동대신문의 머릿기사는 바로 동국대학교의 개교 93주년에 관한 총장 인터뷰였다. 이외에도 지난 호 동대신문에서는 개교 93주년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종합보도면에서도 실려 그 중요성을 독자들에게 알렸다. 물론 개교 93주년을 중요한 기사거리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필자는 그 기사 내용중에 얼마만큼 독자들의 목소리가 들어있었는지 궁금하다. 개교 93주년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생각이 나의 의견은 독자 투고로 보이는 글 한

편 뿐이었고, 다른 곳에서는 개교 93주년을 바라보는 구성원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았다. 비단, 이번 신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요즈음 동대신문에서는 학생들 생활 깊숙히 학생들과 생동하려는 움직임이 부족한 듯 하고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대소사의 전 달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요컨대, 동대신문의 존재 이유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닐까한다. 그렇지 못한채 조각조각의 사실들만 전달하려 한다면 그것은 신문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은 아닐까.
 올곧은 학생, 직원 교수들이 의견을 반영할 동대신문은 보다 나은 동국의 매체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김금엽(사과대 사회과학계열)



TEL : 22603491-2
 (0561)7702058
 FAX : 22791270
 (0561)7702057
 하이텔 . 나우누리 PC ID:dg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오징어까스(1300) 후랑크아채볶음(1300)
화	탕수육백반(1500) 소고기야채밥(1300)
수	콜렐이소면무침(1500) 카레만두(1300)
목	순살돈까스(1500) 오징어볶음밥(1300)
금	산채비빔밥(1300) 튀김덮밥(1300)

(단위:원)

상록원 학생식당 차림표

월	카레돈까스(1300) 소고기영양탕(1500) 두부김치(1300) 카레돈까스(1300)
화	계맞살볶음밥(1300) 만두국백반(1300)
수	소고기(1300) 계맞살볶음밥(1300) 참치김치덮밥(1300) 우거지김치탕(1500) 하이리이스(1300) 참치김치덮밥(1300)
목	오징어탕수(1500) 어묵백반(1300) 김치수제비(1300) 오징어탕수(1500)
금	양송이볶음밥(1300) 산채비빔밥(1300) 소고기무구(1300) 양송이볶음밥(1300)

(단위:원)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콩나물국 (1300) 전주비빔밥 (1800) 제육김치짜개 (1300)	첼이채볶음밥 (1500)
화	곰국 (1300) 배추국 (1300)	오징어볶음덮밥 (1500) 돈까스 (1500)
수	수제비미국 (1300) 아묵국 (1300)	소고기떡볶이 (1800) 김치볶음밥 (1600)
목	북어채국 (1300) 근대국 (1300)	소고기덮밥 (1700)
금	청국장짜개 (1300) 소고기무구 (1300)	잡채덮밥 (1800) 돈육덮밥 (1600)
토	민두매운탕 (1300)	카레리이스 (1500)
일	김치국 (1300)	비빔밥 (1300)

(단위:원)

온방글

축하합니다

△5월 18일은 우리 동아리 불화가 20번째 맞는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98더들이
 △우리 여동생 민경이가 상인이 되었어요. 언니가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사랑해. -윤경연니가
 △저를 비롯한 79년생들의 상인됨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그리고 RCY 회원 여러분들 축하해! 잘 몸쳐봅시다. -이준열
 △법원 서기보 합격! 승철이형 수고많이 했습니다. 2년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형이 존경스럽습니다. 철학과 화희장서민호. 만찬을 준비해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여러분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멋진 학과 열심히 이끌어

가시길...

△또다른 이야기 전시회 수고했다.

-93 통통이

-3기 곰

열심히 합니다

△마음소리 8기 9기 모두 열심히 합니다.

알립니다

△17일은 영문과 사진 찍는 날이래요. 이쁘게 찍어주세요. -영문인
 △소낙비가 축제 중 영화제를 합니다. 많이 참석하세요. 그리고 소낙비 10기 여러분 화이팅!
 -6기
 △AONE-PRO 전자수첩 주으신 분 연락 바람. T-019-572-9507.
 △CIRCLE 선영에서 5월 26일까지 각종가요제에 학교대표로 본선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동국대 사격부 전국 15회 회장기 우승 하고 되길.
 -사격부 화이팅
 △125cc 엑시브 삽니다. 돈 다 쓰기전에 연락주시요. T:016-578-6714, 773-3791.